2026년 01-16-금요일 치유예배메시지 녹취록

말씀제목: 요한복음9:1-7
말씀구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찬양팀을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는 말씀
3절에 이 사람의 죄는 부모에게 있는것이 아니고 이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곧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하셨느데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은자라는 뜻이고 거기가서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한사람이 있고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눈이 뜰거야 내안에 있을때 날때부터 있는 원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밖에 없다고 하신것이다.

1) 신년 집중 – 이번에 은혜받은신분들이 많은줄 믿는다. 우리가 잡은 언약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계속 평생 약속의 땅으로 가시기를 바란다.
2) 진행중 – 릴레이기도 한해 동안 계속 돌아갈것이다. 잡은 언약이 의미 있다. 오늘은 내가 우리교회의 파수꾼이다. 조용히 묵상해보면서 기도해보라 감동적일것이다. 은혜있기를 바란다.
3) 우리교회에 주신 단어는 교회 300%이다. 그중에서 예배 100% 조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바란다. 왜 강조하냐면 예배의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시간낭비된다. 예배는 응답의 근본행위이다. 예배가 가슴에 들어온 사람은 진짜 응답받는다 말씀도 받고 그렇다. 우리교회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일 간증하라고 하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여하튼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 보면 주일 아침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미국문화를 타서 그렇다. 절대 속으면 안된다. 어제 아래 수요일 다민족 예배 본문이 안식일이었다. 출31장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하신것이다. 그만큼 엄하게 명하셧다. 많은 메시지가 잇겠지만 내가 네게 준 7일중 하루를 내게 내놓으라는것이다. 7일 다 내것인데 그중에서 하루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10일조 정신과 같다. 10개 전부 내것아니냐 그중에 한개 가져오라는것.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온전한 십일조라는 단어도 있다. 십일조라는 의미로 반만 드리는것 말고 진짜 십일조, 온전한 안식일. 만반 드리는게 아니고 하루 전체를 내한테 내놓으라는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것을 보면 마12장 내가 안식일의 주장을 하신다. 안식일날 주님은 구덩이에 빠진사람 건졌다. 이것이 네가 안식일날 네가 생각한 일이다. 내가 만든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 안지키신다고 쓸데 없는 말을 하니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성전보다 큰이가 여기 있다고 마12장에 말씀하셨다.
성전이 나를 지켜야 한다 성전이 나를 섬겨야되 나는 거기서 뭐 안해도돼. 성전이 나를 위해 있고 안식일에 너희는 나를 해야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이다. 약속의 피를 해서 네가 먼저 살아야된다 온종일 살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야 하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것이 안식일이다. 애굽에서 그날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켰잖아 그날 네가 그날

약속의 피를 발라서 나온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는 하루를 구분하라는것이다. 진짜 하라고 일하지 말라는것이다. 일하지 마라에 걸렸다. 행위에 걸려있다. 그것을 하는 이유 내용에 걸려야 하는데 이야기 하려면 길다. 예배회복해야 한다. 2부 금요예배 수요예배 각부 예배 중요하다. 아침에 예배드리고 끝. 미국 문화이다.

아마 미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인데 아침에 예배드리면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가 될것 같다. 한 70%이고 남은자는 30%일것같다. 한국은 내 생각에 아직은 주일 지키는 것은 2부까지 드려야 된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은 70%이나 미국은 30%라고 생각한다. 선택은 자유지만 따라가면 자기 손해이다. 미국에 좋은것 많이 따라가야 하지만 이런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된다. 예배에 대하여 기도해보시라.

(2)기도이다. (3)말씀이다. 말씀운동이다.- 지교회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사역자는 더하고 사역이 없는 자는 더 참여하기를 노력하고 이것을 찾아가는 300%가 올해 우리가 해야 할것이다. 이것을 통들어 기도 300%이다. 우리는 언약이 있기에 남은것은 기도뿐이다.

1. 요9:1-7 나는 저주에서 해방한 자이다.
1)1절 운명에서 빠져나올수 없다. 안된다. 그때는 더했을것이다.
2)5절에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다. 흙에 침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것인데 절대 침이 능력이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것이 포인트이다. 하나님이 거기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라는대로 하면 마른땅으로 건너가는것이다 .
3)말씀을 하신대로 한것이 포인트이다
4)보내신 이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2. 나는 실로암
1) 그리스도
2) 지정하신곳, 그 옆에 실로암보다더 더 훨씬 밝고 좋은 물에서 백날 씻어도 병 안난다. 하나님이 지정한곳이다. 그 의미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이것때문에 저 부모죄도 자기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그에게 있다고 하신것이다.
3)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다. 이일을 위하여 창세전의 계획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일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3. 모든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닌것이 없다. 전부다이다.
1)2절에 누구에 의해서 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2)부정적 율법적 이런 시각은 다 버려야 한다. 우리 인간은 체질이 되어있는데 원죄이다. 부정적인 소리는 한마디도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소리를 안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과거에 잡힌사람 핵심메시지에 나왔다.
3)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된다. 보통 영적 문제자는 과거에 잡혀 있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것 다 버려야 한다. 오늘 메시지에서 이런 것에서 해방되었다는것이다. 부모가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 자녀에게 실수했다고 못했다고 하지 말고 괜찮다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이 과거에 잡힌것이 아니다.

4)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사명자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의 죄고 왜 이렇게 되었냐 부모죄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복음으로 답난 사람은 눈뜨기 전에 저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 눈뜨고 난뒤에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었고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는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하다 눈뜨고 증거가 나왔는데 아이고 네가 복을 받았네, 그런데 눈 뜨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것은 진짜 복음의 답 난자이다. 우리는 이래저래 실수 많이 하는데 오늘부터 딱 고쳐라. 진짜 부정적인 소리는 기억도 안하는것이다. 필요없다. 아무한테도 도움안된다 부정적인 소리는 제일 먼저 자기를 죽인다. 10명 모인곳에 다 흑암이 덮혀버린다. 그사람보다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고 싸우지도 못하고 속에는 흑암깔려서 괴로워 한다.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맞는 말은 한다 맞다고 한다. 맞지.그래..
그 맞는 내용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말하라고.

4. 결론 – 다시한번 복음으로 정리하라.
1) 내 생각 마음 말 행동, 생각을 복음으로 정리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참아야 한다 말을 그리고 모든 행동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그리하는중에 조금씩 바뀌어 간다. 여하튼 어디서 결론나냐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고백에서 결론이 난다. 예배에서... 생각해보라 맞는가 감각없이 다니지 말고... 고난이 축복이라는것은.. 고난중에 생각이 많아지기에 그렇다.
2) 깊은 기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잡은 단어는 기도300%이다. 마음에 딱 들어오면 나도 하겠다 결심하는것이다. 이 시간표가 누구든지 와야 한다.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것이기에 그때부터 기도 포기하지 않고. 바로 24가면 좋지만 여하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받는다. 우리가 그정도의 복음은 받았다. 전에는 포기 안하려고 입 악다물고 해도 안되었다. 나는 그때 결심하고 기도하려면 허리가 아팠다. 왜그런지 모르겠다.
지금은 다르다. 조용한 가운데 결심 딱 된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도달할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에 무슨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게 기도할수 있는 영적상태의 준비이다. 여기서 준비하여 한단계씩 24될것이다. 우선 이 마음만 있으면 일단 정복이다. 아직 안왔다 그래도 정복이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 딱 들어온것이다. 그래서 미리 정복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된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믿음이 안생겼ㅇ르까? 이게 보통 믿음이겠는가? 그정도의 믿음 아니겠는가? 안그런가? 그러면 미리 알고도 남지 미리 정복을 하고도 남고, 뻔하지 않는가 안그런가? 우리도 어쩌다 말씀들어오면 확신 든다. 아직 안되었는데, 평생에 메시지가 들어와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되겠는가? 그게 요셉이라 그말이다. 요셉의 출발을 이해한 만큼 체험된 사람은 이런 소리를 한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내 혼자 생각이다. 전세계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누가 이런 소리를 하겠는가? 우리도 그리되어야 한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다.
3) 치유 너무 중요하다. – 237 서밋 치유,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었다 쌩뚱맞다고 생각했다 치유는 치유 서밋은 괜찮은데 237은 왜 들어가는지... 그러나 세월 지나고 나니 이해가 된다. 모든 것 치유되어야 한다. 237 마음, 믿음, 경제, 가정, 질병뿐만 아니고 전부...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4) 에빌리 권사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핫히라.
오늘 기도하는가운데 한칸더 업데이트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